A Brief Account of British Librarianship in 1975

1975년도 영국 도서관계의 약사*

K.W. Humphreys 저
한 순 정 역
〈영국문화원 도서실장〉

지난 몇년 동안 영국 도서관계에 일어난 대폭적인 변화로 말미아마 下記에 언급된 영국의 각종 도서관은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大英圖書館(The British Library; 略稱 BL)의 설립

최근 영국 도서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것은 새 「대영도서관」의 설립이다. 이 기구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다른 논문[1]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BL 산하에 통합된 중요한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1)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과 科學參考圖書館(The Science Referenee Library)이 통합되여 BL의 참고도서부(The British Library Reference Division=BLRD)가 되였고, (2) 주로 인문계열도서의 相互貸借(Interlibrary Lending)업무를 맡아 보던 국립중앙도서관(The National Central Library)과 과학, 기술분야의 장서를 취급해 오던 國立科學技術貸出圖書館(The National Lending Libr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이 통합되여 BL의 貸出部(The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BLLD)가 되였으며, (3) 독립적으로 운영되였던 비영리적인 英國國家書誌發行機關(The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BNB)이 BL의 書誌部(The British Library Bibliographical Division=BLBD)로 개편되였고, (4)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정보과학(Library and Informatiion Science)분야의 연구비 조달업을 맡아보고 있던 정부과학기술정보처(The Offic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OSTI)가 확장되어 BL의 硏究開發部(The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Development Devision=BLRDD)가 되였다.

이 BL의 관리부서인 대영도서관理事會(The British Library Board)는 전 재무부장관과 예술상을 지낸 Eccles경을 이사장으로 하고 그외 9명의 보직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중(직책상으로 자동참석 자격을 갖는 이들 BL의 四部署의 사무국장 의에) 사서라고는 단 한사람 뿐이다. BL의 수석 행정관은 또한 국가수석사서(The National Librarian)의 직무를 맡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여러 상이한 분야의 기구들이 통합되는데는 시간이 요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통합된 종업원들의 봉급 및 등급차이 조절 및 재조직(특히 各部署간의 관계)과 위치에 관련되는 것 들이였다.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이 런던에서 이전해서 Boston Spa에 있는 국립대출도서관(The National Lending Library)과 통합하므로 말미아마 이제는 이 단일 대출도서관에 의해 대량의 정기간행물 및 소량의 장서로서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지방대출제도는 그대로 살려두어 공립도서관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충실하게 봉사를 계속하게 하고 있다. BLLD는 또한 장서 소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수도 증강하여 국내 도서관내지 전 세계도서관에 도서대출과 복사 서어비스를 하고 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자체 상호대출 서어비스에 의존하는 것보다 Telex로 BLLD에 의뢰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때도 있다[2].

BLBD는 書誌情報(Bibliographic information)를 전국적으로 보급시키는 방법을 개량했으며 또한 여러 자동콤퓨터 시설을 통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부서는 영국의 축차간행물등록 본부로서 영국 간행물에 대한 국제표준축차간행물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s Numbers)를 배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제 BLRDD는 원래 OSTI의 책임분야의 범위를 넓혀서 전 분야에 걸친연구를 뒷바침하게 되였다. 이 部署가 참여하는 일의 범위는 다양하여서 Cambridge 대학과 Lancaster 대학에 연구기구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또한 소수의 자동조작 푸로젝트——이 중의 두 푸로

* 本稿는 英國文化院提供 重要論文集錄 271號(1975. 11)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著者는 現在 英國 Birmingham 大學校中央圖書館長에 在職中이다.

1) K.W. Humphreys "The British Library", *Journal of Librarianship*, 4 (1972), 1-13.

2) M.B. Line "The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 *LIBER Bulletin*, 5/6 (1974), 65.

젝트는 하기에 설명 되였음——를 설립하는데 협조하기도 했었다. 최근에 와서 이 부서는 도서관의 콤퓨터응법에 관여하고 있는 사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범 전국적인 진보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부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간문제이다. 현재 科學參考圖書館은 부적당한 곳에 수용되여 있으며, 영국의 최고인문계열도서관은 대영박물관내에 어설프게 수용되여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건물을 이 박물관 건너편의 Bloomsbury에 세울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King's Cross역 근처에 이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정부 관계 장관의 결정에 의해 까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금 BL의 토대는 확립되고 있지만 이 기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발썽이 많으며 또한 BL의 타 영국도서관들과의 장래 역할에 대해 사서들은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 그전에 지금 설립된 이 기구와 비슷한 것을 설립할 것을 Parry 보고서[3]에 제안했을 때 사람들은(BL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이사회(National Library Board)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이사회에 의해 도서관 전분야의 미래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BL이사회 중 사서는 한사람 밖에 지명되지 않았었다. 지금 BL의 업무와 타 도서관들의 업무를 연관짓는 어떤 정식적인 체제는 없다. 이 결과로 BL이 자기 산하 외의 타 도서관에 미치는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때 〔이에 불만한〕 어떤 사서들은 BL의 정책을 개선하는 방책을 물색하기도 했다. 본인은 앞으로 수개월내에 개최될 영국도서관협회나 국립 및 대학교도서관회의(The Standing Conference of National and Universities Libraries=SCONUL)에서 이 문제가 심각히 다루어 지리라고 확신한다[4].

공립도서관(Public Libraries)

최근에 와서 공립도서관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는 385개의 지방기구를 재조직하여 이를 121개로 줄인 것이다. 이런 변화가 市·郡도서관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다. 이리하여 소규모 도서관은 독립적인 운영권을 상실하게 되여 큰 기구에 흡수되였는가 하면 어떤 대규모 도서관 조직망(Large library systems)**은 더 커지기도 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출이 삭감되고 운영면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이여야 하나, 제조직 초창기에는 여러 구 기구의 직원들은 새로운 단일기구로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장서 취급과 아울러 이들 장서의 목록관리(Bibliographical Control)에 관계되는 제 난점에 봉착하게 되였다. 그래서 많은 도서관 조직망은 기계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간구하게 된 것이다.

현 국내 경제사정으로 말미아마 모든 도서관은 타격을 받고 있다. 예산삭감시, 공공기관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기관들은 소득면이 없는 도서관, 박물관과 미술관들이다. 지방 당국의 정책여하에 따라서 어떤 도서관은 他도서관 보다 더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몇몇 도서관은 그들의 건물 신축이나 분관 신설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아마 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벅킹햄셔군(Buckinghamshire)에서 채택된 방안인데 이들은(예산관계로) 일년 동안 소설이나 아동서적은 구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립도서관기구는 계속 이용자들에게 최고수준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대학도서관(University Libraries)

1960년도 종합대학도서관의 경제적 여건은 좋아서 이들의 대학교는 급속히 성장했으며 대학보조비지급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ttee)를 통해 지급되는 상당한 액수의 정부지원금이 도서관 뿐만 아니라 대학건물 신축 내지 교직원 증원에 쓰여졌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같은 好機는 지나가 버려서, 적어도 앞으로 몇년간은 다시금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구입비는 삭감되여 큰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다수의 종합대학도서관은 직원의 사임이나 정년퇴직으로 말미아마 생긴 공석을 채우지 못하도록 되여 있어 도서관 직원수는 5% 내지 10%로 감소될 것이며, 신임 직원도 채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신축 중지령(Moratorium)이 내려서 대학보조비지급위원회는 대형 도서관의 성장과 시설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주로 사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했다. 재고 서적의 처치문제와 아울러 별채 저장소——특히 협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장소들——에 있는 장서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관계 당국자들은 지금 각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서적들을 앞으로는 BL의 대출부를 통해 빌려 볼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학생이나 선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빌려보

3) University Grants Committee, *Report of the Committee on Libraries*, 1967, 81 ff.

4) K.W. Humphreys "The Need for a National Library Service", *Journal of Librarianship*, 5(1973), 259 ff.

** 역자주 : 여기서 말하는 System은 The Chicago Public Library System에서와 같이 시카고市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시립도서관의 분관들을 총망라한 것이다.

고 싶은 책을 몇일이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며, 또한 BL은 정부의 재정적 억압에서 면제되리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工藝대학 도서관(Polytechnic Libraries)

공예대학은 1960년도 말기에 공과대학, 미술대학, 상과대학이 통합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 하다십이 사서들은 직원 내지 장서 통합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 중에도 어느 대학은 수 마일 떨어져 있어서 봉사면에 여간 힘이 들지 아니했다. 그러나 사서들은 이런 난점들을 능률있게 처리했으며 또한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받아서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었으며 탁월한 봉사방법을 개발했다. 지금 많은 교육대학의 도서관과 사서들이 몇몇 공예대학 도서관에 편성됨에 따라 난점이 생겼으나, 결국 이로 말미아마 이들 도서관이 전 보다 더 강화되게 될 것이다.

기타 도서관의 봉사

이 짧은 논문에서 이 외 다른 도서관들 즉 아동, 청소년, 맹인 등등의 특수도서관의 봉사면에 관해서 상세히 다룰 수 없다. 또한 이 밖에도 병원과 형무소에도 도서관이 있다. 이와같은 봉사는 지방 당국이 주로 공립도서관의 협조하에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급 이상 수준의 봉사를 하고 있다.

자 동 화(Automation)

나는 여기서 도서관의 자동화의 몇몇 문제에 대해서만 잠시 말하려고 하며 또한 이들 문제를 한 제목(자동화)하에 다룰려고 한다. 이 자동화를 주로 이용하는 BL의 부서는 BLBD인데, 이 부서는 영국 출판물에 대한 콤퓨터 도서목록(Machine-Readable Catalogue=MARC)을 작성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국회도서관 MARC테이프를 영국에 보급하는 국가기관의 역할도 한다. 이 부서는 또한 영국국가서지(British National Bibliography=BNB)에 의거한 목록작성 서어비스를 마이크로 필름이나 다른 형태로 만들어 몇몇 공립도서관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부서는 또한 수년내에 현실화될 전국직통봉사기구(A national on-line system)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이때까지 이 부서는 도서관들이 국내외에서 들어 오는 MARC자료가 국제목록과 포오맷 수준(Formatted standards)에 맞게 조작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부서는 최근에 와서 1950—1970년간의 BNB목록에 입각한 MARC자료를 제작했다.

런던 및 동남지역국(London and South-East Regional Bureau)은 BLBD사업을 보충하여 BNB에 의해 취급되지 못한 다량의 자료를 포함한 BL산하 도서관 장서목록을 MARC로 작성했다. 앞으로 도서관들——특히 재편성된 공립도서관들——은 그들의 도서목록을 이같은 BLBD의 MARC와 과거 BNB목록의 MARC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리라고 믿는다.

이 분야의 중요한 계획안으로 버밍함市 산하 도서관과 상호 협동 콤퓨터 계획안(*Birmingham Libraries Cooperative Mechanization Project*=BLCMP)을 들 수 있는데, 이 BLCMP의 기본자료는 BNB와 미국의 회도서관 테이프 그리고 산하 도서관의 자료로 이뤄진 것이다. 현재 12개 도서관——아마도 1976년 초기에는 20개 도서관——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월간도서목록을 마이크로 필름이나 마이크로 피시 또는 책으로 받아 보게 될 것이다. 이들 도서관 중에 두 도서관은 외국 도서관이다. 이 일을 위해 BLCMP와 BL은 친밀한 협동을 하고 있으며, BLCMP는 과거 BNB목록집(File)에 입각해 만든 MARC자료를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타 논제(Other topics)

다른 논제 중에 지금 많은 영국의 사서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도서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인데 이에 의하면 저자나 출판사는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그들의 서적에 대해 차용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이 안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이 안이 성문화 되리라고 기대되지만, 대출요금을 지불해야 한 정부로서는 당분간 이 안을 지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본다. 영국도서관협회는 이 대출요금지불안을 강경히 반대하고 있다.

영국 사서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또 하나의 논제는 판권인데, 한 정부 위원회는 SCONUL과 도서관협회의 증언을 참조하여 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서관협회는 이 정부위원회와 상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복사출판인데, 현행법에 의하면 복사출판에 관한 법을 준수하는 사서들에게는 이것이 큰 골치꺼리가 되지만 사서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짧은 논문에서 대영도서관에 관한 몇몇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따름이였다. 나는 당면한 난점만을 너무 꼬집어 말했는 것 같지만 이 논문에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영국의 도서관은 경제적 난경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봉사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